



들꽃편지  655

2023.8.23.처서
<https://cyw.pe.kr>

재야에 숨은 고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다녀온 영동의 천태산에는 영국사라는 1500년이 넘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000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길어야 겨우 100년 조금 넘는 교회 역사에 비하여 1000년 넘는 사찰은 전국에 수도없이 많습니다. 왜 사찰은 그렇게 오래 갈까요? 제 생각에는 개인이 사찰을 소유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사찰의 '국사당'은 그 사찰이 배출한 고승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오래된 절일수록 고승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국사(國師)'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자' 또는 '은자'(隱者)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환대 사역자들은 숨어있는 은자(隱者)들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재야의 숨은 고수'들이었습니다. 한적한 산골이나 사막에 숨어 들어가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을 섬기며 한 수씩 가르쳐 세상을 소리없이 바꾸는 은자(隱者)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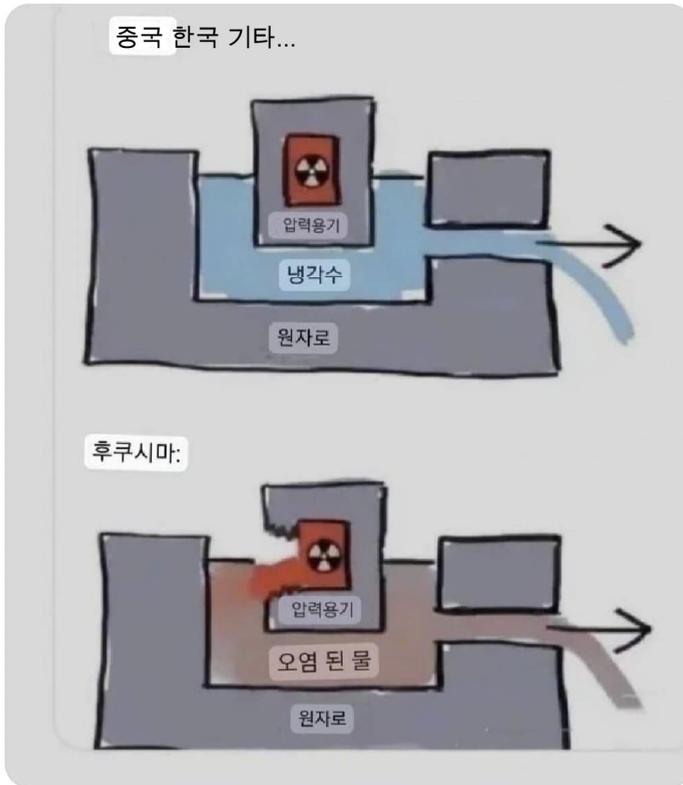
불나방처럼 인기나 돈이나 권세를 쫓아 유명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기껏 사람들 많이 모아 큰(?)교회 만든 샅꾼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득세하는 한국 교회에 언감생심 성자, 은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연젠가 아내가 "여보! 나는 열심히 맛있는 밥을 할테니까 은자는 당신이나 혀. 열심히 같고 닦아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고수(高手)가 되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때 저는 그런 성자나 은자가 되고 싶은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흥내라도 내보려고 지금 시골에 숨어 살지만, 나 여기 산다고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있으니 은자가 되는 것은 벌써~ 물 건너 짜~기 가고 있네요^^

♥가을 풀벌레 소리를 즐기고 있는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중국한국도 방류하고있다면 괜찮다는 멍청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사랑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에
한결같이 최선(最先)을 베풀다.
차선(次善)이라는 것을 모른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
아니, 주지 못한다.
가장 좋은 것을 두고
덜 좋은 것을 준다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46 저는 이런 사람

아파트 경비 근무 중에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이곳 홍성에 내려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하자

잠시 바람을 쐬고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선듯 오케이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무하고 쉬는 날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면 쉬지도 못할 텐데....

그들을 식당에서 접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왜 목회를 못하고 있느냐고 말하면 또 마음에 상처가 올 텐데...

한 분의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갑자기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님께서

경비원 교육을 12시까지 받으라고 하여 퇴근도 못하고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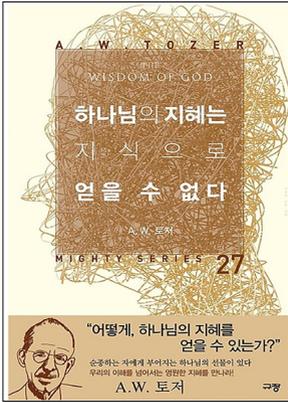
“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27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56쪽 11,700원 규장 2018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원한 지혜
를 만나라! 일평생 하나님을 추구했던 토저
가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라.

1. 영원한 지혜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창조되지 않은, 태고의 영감(신적 호흡)인 소피아(sophia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이며, 전능자의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영향력이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밝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흠 없는 거울이고, 그분의 선하심의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2. 하나님의 지혜

유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지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지혜로부터 만물이 생겨났고, 이 지혜는 신성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이고 전능자의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힘이며 빛의 밝음입니다.

3.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잠 3:19)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분별로 하늘을 펴셨습니다.(렘10:12) 구약 율기, 전도서, 잠언을 읽는 사람은 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이 어떤 인격체(人格體)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지혜이십니다.(고전1:30)

4. 구명정 구원

우리는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죄와 지옥에 대비하는 일종의 '구명정'처럼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구원'은 기독교를 충분히 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요일 1:1-3)

5. 모든 존재는 영으로부터

현대 과학은 세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다가 원자, 핵이 텅 비어있는 영(o)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찾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영에 이르게 된다'는 구약의 창조 사상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6. 하나님의 지혜의 빛

기독교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고전2:7)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신적(神敎)인 것입니다.

7. 신적 지혜와 능력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 이해가 됩니다. 신적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교회를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8. 소경이 소경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두뇌와 학문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이런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학자가 너무 많아서 온갖 잡다한 지식이 쓰레기처럼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나 신적 지혜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거의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조명을 받은 선지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직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명(빛)'을 받은 1명의 선지자는 소경 99명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지만, 똑똑한 학자 99명은 소경 1명도 안전하게 인

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학자 99명은 있어도 조명을 받은 1명의 선지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10.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불가사의 하고도 아름답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미리 예정하여 '감추어 놓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11.참된 지혜는 어디에

인류는 지식, 교육, 지성, 재능, 배움을 총동원하여 줄곧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시와 예술과 종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참된 지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이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욘 28:12)

12.지혜는 받는 것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13.잘못된 믿음

사람들은 기독교를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종교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종이 올리고, 그 종소리에 마귀가 공포에 질려 마치 개처럼 꼬리를 두 사이에 넣고 줄행랑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얼빠진 생각입니다.

14.순전한 그릇에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의 그릇에 지혜를 담아 주십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온갖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통 같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얼빠진 생각이 가득한 상태로는 안됩니다.

15.경외함의 그릇에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농담을 지껄이고 듣는 이들로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경박하고 가볍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

어”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16.사랑의 그릇에

순전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과 동정과 공감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자아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능력입니다. 학위를 얻고 지식이 출중할지라도 매정한 사람은 결코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그릇에 담깁니다.

17.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에 지혜를 담아 주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있어야 비로소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8.이타심의 그릇에

성 그레고리(st Gregore)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태초에 인간이 가졌던 참된 이성을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비운 사람만이 머리와 마음에 지혜를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웃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29.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온전히 빛을 받아 상황을 꿰뚫어 보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30.지혜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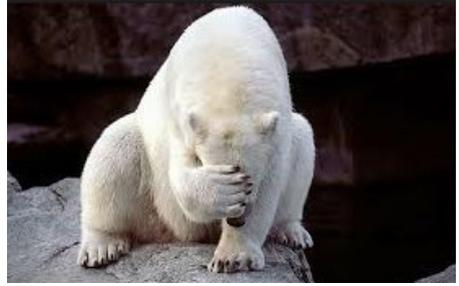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학문, 사업, 발명품, 심리학, 상담학, 심지어 신학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욥28:23) 그분은 지혜를 어린아이들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과 온유한 자들에게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정리: 최용우

부끄러움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염치는 있어
나뭇잎으로
가릴 곳 가렸다는데

나는 나는 도무지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함도 모르고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시작노트 / 나이가 들수록 왜 자주 부끄러움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자주 하게 된다.

정용섭 / 그렇네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닐는지요.

새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부끄러움의 분량만큼

은총의 분량도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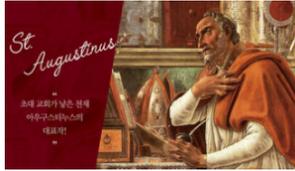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400원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257. 희생에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신을 경배하는 종교의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ی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258. 구약성서의 성찬의식 제물 규정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신 뒤에 바로 제사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죽임당한 짐승을 제물로 원하지 않으시고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제물로 원하신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13:1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259. 그리스도교 신자의 참된 제사란 무엇인가

참된 제사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하여 행해지며, 우리가 진실로 복 받을 수 있는 최고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길에 타올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하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불변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 그분께 바쳐진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제사가 아닌가?

260. 천사는 어떤 제물도 바라지 않는다

하늘나라에 거처하고 있는 불멸의 복된 존재들은 그들 창조주의 풍요로움 안에서 기뻐하고, 영원성 안에서 끝없이 존재하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얻으며, 창조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내려받는다. 그들은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존재를 가엾이 여기고 사랑하여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제사 드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계속)

햇볕같은 이야기



1. 최대의 선물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약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승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神)인식은 말하자면 개, 돼지와 수준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돌과 구’가 없었던 죄(罪)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버린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든 공통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나 ‘순장(殉葬)제도’나 ‘고려장’같은 것이 모두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온 인류를 대표하여 인신제사로 받으시고 죄 문제를 한 방에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인간이 신을 보면 눈이 멀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라 33년 밖에 못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을 뵈올 수 있는 방법으로 중보자이시며 안내자(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눅9:25)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면 그는 아직 '최대의 선물'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7567)

2. 최고의 선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맹자(孟子)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고, 순자(荀子)는 사람의 성(性)은 악한 것인데 인위적인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선하게(性善)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여(性惡) 악으로 가득찬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선한 본성을 되찾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절망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인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또 참으시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예수 믿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5천명이 다같이 앉아서 사이좋게 먹는 것인데, 이 세상은 역사 이래 소수의 몇 사람이 부(富)를 독차지하고 다수는 슬픔 속에서 고통받는 구조를 단 한 번도 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희망인 것은 곳곳에서 이 구조를 깨보려고 분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시대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환경과 질이 좋아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희망인 것은 성령님은 진실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568)

3. 해피엔딩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들플을 들고 가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네 아빠가 식물학 박사이니 아빠에게 물어보렴”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보렴” 그리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풀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풀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

교만한 교인이 목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목사도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는 생각하기를 “목사가 되었으면 교인의 성격을 보지 말고, 교인의 영혼을 보고 위로 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목사는 교만한 교인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습니다. 교인도 자신이 화를 낸 것은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해피엔딩~!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며 파는 과일장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할머니가 5천원짜리 수박 한통을 사면서 5만원짜리를 잘못 꺼내주었습니다. 돈을 잘못 받은 것을 안 과일장수는 5만원이면 하루 일당이지만, 수박을 들고 사라진 할머니를 찾아 뛰어가서 4만5천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해피엔딩~!

장마철이라 집안이 온통 습기로 가득하여 창문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겁습니다. 에어컨을 한 30분 돌렸더니 어느새 집안이 보송 보송해지고 사람들도 물에서 구조된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와 어휴 시원해 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공기 중에 습기만 없어도 사람의 기분이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해피엔딩~! (7569)

4.하나님의 새로운 일

우리의 뇌(腦)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망각하고 싶어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과거에 힘들었던 일도 재미있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43:18) 과거는 추억할 수 있을 뿐이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9)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힘과 지원으로 하면 너무 쉽습니다.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지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사43:19)고 하십니다. 주여,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일을 못하실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는 것은 그 일의 결과와 열매를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사43:20)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합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바로 지금! (7570)

5.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였을까요?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건강하고, 추진력도 있고, 재능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운동신경도 없고, 눈치도 없고, 게으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지었다.(사43:20)라고 하셨으니 저도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라고 하시네요. 워매~ 제가 음치 박치인 줄 모르셨습니까? 제가 찬송을 하면 듣기에 괴로우실텐데요. 찬송은 ‘시와 찬미로’(엡5:19)라고 하셨으니 저는 열심히 시(詩)를 써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큰일났습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사43:22)라고 하시니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선택 받았음에도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나이다. 나는 주님을 괴롭게 여겼으며, 마땅히 바쳐야 할 번제의 양을 주님께로 가져오지 않았으며, 내 제물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지 못했고 시간과 몸으로도 주님을 흠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짐으로 주님을 수고롭게 하였으며, 내 죄악으로 주님을 괴롭혔습니다.(사43:23-24)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하십니다. 오 주여, 제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하여 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 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바로 지금! (7571)

6.땅의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 올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9)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가치관에 얽매어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땅의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땅’에 있습니다. 어디에 땅 조금 사 놓고 그곳이 개발되어 땅값이 올라가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자기 땅값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집값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핏대를 올리면서도 자기 땅값은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의 사람은 삶의 관점이 하늘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자신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의 관심사는 ‘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물리적인 땅들은 쉽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설령 목회자, 장로라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뿐이라면 그는 하늘이 아니라 세상 땅에만 관심이 있는 ‘땅의 사람’입니다. (7572)

7. 하늘의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상(하늘)나라와 지상(땅)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천사를, 땅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실패한 듯 보였던 창조 목적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갈망하고 죄와 세상 나라와 더불어 싸우며 ‘땅 투기’를 거부한다면 마귀가 ‘땅’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평생토록 땅에 묶어두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동산 유투버가 대놓고 ‘땅이 진리’라고 하더군요. 아닙니다. 땅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울무입니다.

그렇게 땅이 갖고 싶으면 ‘호주’나 ‘캐나다’로 이민 가십시오. 그 나라들은 비옥한 땅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원하는 대로 준답니다. ‘땅을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맘대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 사람'입니다. (7573)

8. 재미있는 이야기

거미 알집에서 거미 새끼들이 부화하여 끝도 없이 기어나와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주머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새끼들이 차 있었는지... 그런데 거미만 아니라 인간도 죄 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죄 주머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죄가 기어 나옵니다. 꾸물꾸물 기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에 앉아서 “헤칼 야훼 헤칼 야훼 헤칼 야훼(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7:4)하고 외쳤습니다. 신약시대 목사들은 교회에 앉아서 “이 성전, 저 성전, 거룩한 성전”하고 소리를 칩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 들고 “정직한 사람 하나가 어디 있느냐?”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의인 열명을 찾아와도 멸하시겠나이까?”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자 “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먼저 죽이고 내 백성을 죽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코가 근질근질하여 에.....취!!! 엄청 큰 재채기를 합니다. 아내가 “어휴~! 듣는 내가 다 시원하네” 하면서 웃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글을 몇 시간 계속 썼더니 어깨가 저려 와서 일어나 두 팔을 위로 쭉-----욱 올리고 크게 기지개를 켭니다. 온몸이 시원합니다. 재채기만 잘해도, 기지개만 잘 켜도 잠시 동안은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7574)

9.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죽겠어요. 텔레비전 강사들의 강연이 더 재미있고 귀에 쭉쭉 들어와요”라고 하셨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설교자의 책임인 경우가 있고, 듣는 청중의 책임인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은, 이성적 사유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인간의 의지에게 납득시키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일이라서 재미있고 정보도 있으면 청중들이 하하호호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인간의 영혼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일이라서 설교자가 메시지를 믿음으로 영혼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청중들이 반응할 수가 없죠.

강연이나 세미나는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여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면 되지만, 설교는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책을 보고 공부’해서는 ‘흐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것은 없고 강연처럼 재미도 없으니 설교가 청중들의 귀에 착상이 안 됩니다. 고로 설교 준비는 책을 보면서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철저히 그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믿음)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밭’처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어폰이 박혀있는 귀처럼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이런 경우는 듣는 청중의 책임입니다. (7575)

10. 단짠단짠 이야기

저는 계란에서 나는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싫어서 어릴 적부터 계란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자매가 계란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계란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거의 20년 동안 싫은 내색하지 않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우연히 그것을 안 아내가 계란을 안 먹어도 된다고 이해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고통이 찾아들어서 살아났습니다. 이 의사는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숨겨 놓은 ‘포르노 잡지들과 동영상’을 다 없앴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할 때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놀렐루야!

급하게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넉넉한 줄 알았던 카드의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버스는 출발을 해 버렸고 당황해서 “미안합니다. 잔액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부족하네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운전사가 “됐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곤란한 사람에게 “됐어요”하고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리를 탐하고, 돈을 밝히고, 서열을 따지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참으로 게으르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며, 그 종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놀렐루야! (7576) ©최용우



이마트 의자 (사진:최용우)

빈 의자

아내와 밝은이와 함께 이마트 갔다. 두 여자들은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나는 가전제품 코너에서 기다리며 어슬렁거리다가 심심해져서 두리번 거리는데 빨강 노랑 파랑 예쁜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별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섬을 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본다. 눈치가 이상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앉은 의자는 빈 의자가 아니고 '여름 물놀이 용품 판매 코너' 앞에 설치된 소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지나갔구나. 어매 쪽팔려~

얼른 일어나 1층으로 도망쳐 군중들 속으로 숨었다. 그런데 대형마트 매장이 얼마나 넓은지... 한 참 돌아다니면 다리가 아픈데 어디 앉아 있을 곳이 없다. 앉아서 쉬지 말고 빨리빨리 물건 사서 빨리빨리 나가라는 매장측의 배려?

우민정책

불과 몇 년 전까지 유튜브에는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의 ‘헬조선’ 동영상이 현란했다. 헬조선이란 Hell(지옥)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마치 지옥(헬)과 같은 한국(조선)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똑같은 유튜버들이 이번에는 ‘국뽕’ 동영상을 현란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살기 좋냐? 인천 공항, 지하철, 치안, 화장실...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헬조선’이 ‘지상낙원’으로 바뀌냐...

그런데 그 구역질 나는 동영상을 만들어 ‘선전 선동’에 이용하는 자들 중에는 나름 유명(?) 목사 유튜버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유~ 진짜. 그런 ‘우민정책(policies to keep the people ignorant)’에 속으면 안 된다.

썩떡

지난번에 썩떡, 개떡 해 먹었는데, 이번에는 썩버무리를 했다고 장모님이 부르신다. 뒷산에 올라갔더니 파릇파릇한 ‘썩’이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도저히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머릿만 푹푹 따가지고 와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뒀다는 것이다.

시골 어르신들은 문밖에만 나가면 사방 천지에 있는 것이 죄다 먹거리라고 한다. 눈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두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도 못혀.”

‘썩’은 오월 단오때까지 딸 수 있는데, 가장 흔하면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온갖 좋은 성분이 가득한 나물이다. 성인병, 고혈압, 면역력, 살균, 피를 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고 한다.

생리통, 부인병에 진짜 좋단니까. 응? 생리통? 난 남잔데... 그래도 나, 이제부터 썩 많이 먹을래.



정자 누나

내 친구 중에 누나가 세 명 있는 친구가 있었다.(과거형) 이름이 정숙, 정애, 정자였는데, 셋째 누나 '정자'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니 어른들도 우리들도 항상 '정자'라고 불렀었다.

배우 전지현 이미지를 닮았는데 내 눈에는 정자 누나가 더 날씬하고 더 이쁘고 천사처럼 보였다. 우리집이 그집이고 그집이 우리집처럼 허물없이 지냈던 사이라... 초등학교때인지 중학교때인지 "누나! 10년만 기다려. 내가 10년만 더 크면 누나한테 장가를 갈 수 있어나까..." 누나도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했었다.

어젯밤 꿈에 그 정자 누나가 20대의 싱싱한(?) 몸매로 나타나... "용우야,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 것이었다. ㅇㅡ호ㅓㅓ아후~~ |;#* 아이고매, 나 미쳐볼 것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막 뒤섞여 햇갈림

아내는 잠자리에 누우면 금방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가끔 방구 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지 참 신기하다. 나는 잠자리에 누우면 우선 오늘 하룻동안 했던 '묵상'을 하나씩 생각해 본다. 특히 숫자를 떠올린다.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일부러 숫자를 외운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예수어록>오늘부터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간다. 1절 묵상, 그다음에 <햇별같은이야기7569호>해피엔딩 발행, 그다음에 아내와 함께 드리는<매일예배>시편123:1-4 독경, 제목은 생각 안 나고, 아침밥 먹은 다음에 최광열<나비묵상>예레미야5:20-31 무슨 내용이었더라? 정용섭<일흔살에다시 읽는 요한계시록>11장.. 13절인지 12절인지... 여기까지가 오전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저녁 8시부터 <박노해 걷는독서> 좋은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김동호 날기세>동영상 보기 이사야23장 8-12절 약할 때 강함되시니... 그다음 <최용우 시한편>쓰기.... 이렇게 써 놓고 보니 하루에 하는 묵상의 갯수가 굉장히 많다.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하기에 크게 힘들지는 않는데, 너무 많아서 막 햇갈림. 그래도 차매 예방을 위해서 숫자를 외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새 그냥 쿨~잠이 든다.



물웅덩이

“아빠, 저기 길에 엉덩이가 많아요. 크~은 엉덩이도 있고 쪼끔만 해서 이쁜 엉덩이도 있어요.”

“우와, 그래? 아빠도 엉덩이 보러 가야겠다.”

작은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에서 돌아와 ‘길에 엉덩이가 많다’고 했다. 나가보니 비 온 뒤에 생긴 ‘웅덩이’를 ‘엉덩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웅덩이를 보면 ‘엉덩이’가 떠오른다.

어쨌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똑방길에 웅덩이가 많이 생겼다. 사실은 비가 와서 생겼다가보다 차가 많이 다녀서 생긴 구덩이에 빗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 것이다. 지난번에 이 길을 시멘트 길로 500m를 포장했다. 포장길이 끝나는 곳부터 웅덩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안 가고 그냥 되돌아왔다. 웅덩이에 엉덩이 젖을까 봐.



유명

김 아무개 목사님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은 알고 보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숨은 고수인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라고 하셔서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밥값을 내가 내려고 했지만 기어코 밥값까지 내주셨다.

귀한 분이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토다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들으며 씩 웃기만 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유명해져서 세상의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쓰고 싶은 글 충분히 잘 쓰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알려지면 지금처럼 글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누군가가 “최용우 거, 좀 이상여~” 해버리면 그동안 쓴 글 탈탈 털릴 것이고, 뒤든 맘먹고 찾아내면 우리나라에 그 그물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한국 기독교계는 일단 무슨 말이 한번 나오면 그것이 꼬리표가 되어버린다.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일단 붙은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진짜 이상한 곳이다. 그러니 나는 안 유명해지는 대신 글을 자유롭게 쓰면서 살고 싶다.

개가 꼬이는 사람

가족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묵은 펜션 주차장에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너무 더워서 바다에 널부러져 사람들이 다가가도 고개만 돌려 쳐다보며 눈만 깜빡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밝은이가 다가가니 별떡 일어나 마치 흑기사처럼 밝은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닌가... 이 배신감...

유난히 개나 고양이가 꼬이는(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 집 작은딸 밝은이를 보면 맞다. 아마 개들도 저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밝은이는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주었다. 음... 개 코가 밝은이 몸에서 간식 냄새를 맡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별떡 일어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더워 죽지 않으려면

내가 아무리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더위’는 먹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올해는 세계적으로 ‘열탕’같은 여름 이상 기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밤낮으로 더워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내는 “빨리 이사 가자”고 난리다. “우리 집만 더 더운 게 아니라 안 더운 데가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

무기력하고, 졸리고, 입맛이 없고, 매사가 귀찮고, 손발에 힘이 없고, 눈꺼풀이 떨리고, 다리에 쥐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머리가 아픈데, 이런 증상을 ‘더위 먹었다’고 한다.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사병’이라고 한다.

일사병 증상이 약한 것을 ‘열피로’라고 하며 병원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다. 나에게 올해 세 번 정도 머리가 멍멍하고 아픈 ‘열피로’상태가 온 것 같다. 지금도 열피로 상태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12회 비학산283 (일출봉252m) 2023.7.5

▲제613회 비학산284 (일출봉252m) 2023.7.27

▲제614회 미륵산(461m 통영) 2023.7.30

1박2일 가족여름휴가를 통영으로 갔다. '통영'을 검색해 보니 우연히 숙소 근처에 '미륵산'이 있었다. <한국의 산하><산림청><블랙야크 100대 명산>에 모두 선정된 유명한 산이다.

가족 여행을 가서 등산을 할 수는 없으니 그냥 혼자라도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도를 살펴



떠 보다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통영케이블카'가 있었다.

'웁다구나'하고 여행 일정 가운데 케이블카 타기를 넣었다. 두 번째날 첫 일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이가 길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전망대에서 미륵산 정상까지는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10분이면 올라간다.

밝은이는 차마를 입어서 산에 오르는 걸 포기하고 아내와 좋은이와 셋이서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 인증사진을 찍었다. 등산을 해야 하는데 날로 먹는 것이 조금 찢리기는 했다. 등산을 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 산에서 내려온 아내의 종아리가 퐁퐁 부은 걸로 봐서 그래도 등산은 등산이다. (2023.7.3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모기도 입이 비틀어진다는 처서

더위가 그치고 각종 열매가 점점 몸집을 불러 나가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산만한 기운을 정리하고 이용이라는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쓸쓸한 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시원하며 칠석, 백중, 추석까지 이어집니다. 시골에서는 아낙들은 무와 배추 모종을 옮기고, 자고 나면 늘어나는 채소밭의 호박, 가지, 오이를 나누느라 부산합니다. 길가에 설익은 밤송이가 떨어집니다. 논외 벼에 쌀알이 푹푹 영글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해바라기는 꽃이 매우 커서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는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커다란 하나가 되는 꽃입니다. 꽃 하나에 씨앗이 하나씩 맺혀 얼굴에 뺨뺨하게 씨앗이 박힙니다. 큰 것은 2천개 이상 맺는다고 하니 '번성의 상징'이 될만합니다. 가까운 대평동에 해바라기 공원이 생겨서 해바라기 축제도 하고 한동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들꽃편지15권 노란꽃호> 510쪽 30200원(컬러) -8월3일 출간

72. <들꽃편지14권 작약꽃호> 508쪽 21100원 -7월6일 출간

71. <들꽃편지13권 도라지꽃호> 512쪽 21300원 -6월12일 출간

70. <들꽃편지12권 장미꽃호> 504쪽 21000원 -5월10일 출간

69. <들꽃편지11권 과꽃호> 506쪽 21000원 -4월13일 출간

68. <들꽃편지10권 천안국꽃호> 504쪽 21000원 -3월13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6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7월 재정결산

2023년 7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6231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8분이 1,313,847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8.22.일까지 7597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3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
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새로 나온 책

제15권 합본(컬러)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5권 노란꽃호(컬러)
 최용우 편집 510쪽 30,2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싱싱한 목사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5권〉은 제544호(2014.5월)부터 제561호 (2015.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좋은주보(14) 감사주보(15)를 만들어서 전국의 약 1천여 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평생 1만편을 목표로 쓰고 있는〈햇볕같은이야기〉는 드디어 5천편을 써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온 가족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주님의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8편의 예수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펄플



감사일기

가만하면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할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구니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꺼리라는 것을 아는 재미있는 책!
14,100원 392쪽 퍼플



햇빛일기

흰구름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포송포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14,100원 396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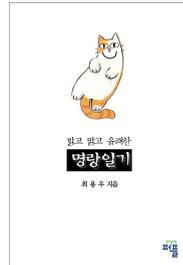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글 모음
14,200원 396쪽 퍼플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랍도 그의 등을 기댁니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14,300원 400쪽 퍼플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요. 얽다보면 저절로 ㅎㅎㅎ 웃음이 지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얘기
15,200원 396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빛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빛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5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